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용인이간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5 월 18 일(화 요일) / 장 소 : 산학협력관 테라스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정**				
<p data-bbox="188 1301 472 1379">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div data-bbox="641 743 1267 121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07 1308 1393 1592">-읽은 책: 수레바퀴 아래서(인문) -주제: 소설의 배경이 능력 만능주의, 경쟁주의 등의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주인공 한스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 없이 주변의 이야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였다.</p> <p data-bbox="507 1648 815 1682">-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p> <p data-bbox="507 1693 608 1727">/ 은* /</p> <p data-bbox="507 1738 1393 1895">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 등장인물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주변의 가까운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 있었지만, 주인공 한스가 어느 정도는 수공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쉬웠다.</p> <p data-bbox="507 1906 608 1939">/ 현* /</p> <p data-bbox="507 1951 1393 2016">친구 하일러와 한스가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달랐고, 한스의 삶에서 결코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 하일러를 통해 충족되어지면서, 좋은 성적을</p>							

내는 것에만 몰두했던 한스에게 하일러는 매력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 /

균형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스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낚시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었지만 그러한 돌파구가 없던 것 같다.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의 수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균형잡힌 지점을 잘 찾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상* /

-자신이 원하는 걸 말했을 때의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대처하는 스스로의 방법과 방식이 필요한 것 같다.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힘있게 이야기하고 어필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 외 공통적인 이야기 /

-교장 선생님의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고 말거야”라고 말하는 부분과, “어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한스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마음 아팠다.

-한스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택한 일이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한스가 하일러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똑같이 시도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의 모습이 느껴졌다.

-등장인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한스와 하일러, 그리고 한스에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어른들(아빠, 교장, 목사, 플라이크)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스: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 없이 주변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으므로 리더의 자질은 없는 것 같다.

-리더가 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주인공에게 스트레스 돌파구도 만들어 주고, 사회적인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다.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 길을 제시해주며 창의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과 건강에도 더 많은 가치를 두면 좋겠다.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

-살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텐데, 스스로 삶의 가치를 잘 정립해서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견고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한스는 그렇지 못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건강한 가치가 있었으면 책에서처럼 아들에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장의 모습을 살펴봐도 명성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스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올바르고 건강한 가치는 무엇일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겸손함이 중요하다. 한스가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봤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더 많은 인간 관계를 쌓았을 것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리더십(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후 소감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짓밟는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여전히 틀에 박힌 교육관이 지배한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생 때와 비교해서 대학생이 된 지금은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찾을 기회도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도 “내 삶의 주체성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하는 논제 중의 하나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해야하는가?”인데, 이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현재 이 시간을 쓰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지금 오늘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2021년 5월 18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용인이간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5 월 25 일(화 요일) / 장 소 : 융합인재학부 과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정**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읽은 책: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1,2부) 주제: 리더십 : 일상생활에 빅데이터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태도</p> <p>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정보가 어디에 쌓이는지가 궁금했는데 알게 되었고, 너무 다양한 정보가 쌓이고 노출되는 점이 소름끼쳤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되어 나중에 주식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면 좋을 것이다. - 정보법 전공에서 알게 된 구글 맞춤형 광고 원리와 구글에서 하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알려주고 싶다. - 우리 전공(의과학 융합전공)과 연계해서, 임상 의학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원에 수익성을 전달하는 사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봐야 할 사람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도박의 '고통 지수' 고객관리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p>빅데이터 이용시, 피사용자의 입장에서 손해나 이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점이 정보를 주는 입장에서 손해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토스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빅데이터 마케팅의 예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토스의 경우 우리 정보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활용이 무섭게 느껴졌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시는 아마존도 있다. 예측배송을 통해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 시킨 후 결제혹은 반송시키는 상품이다. 상품을 받은 소비자의 입장에서서는 분별력을 잃게 되어, 과소비를 하게 되므로 기업의 입장만 생각한 마케팅이다. 이런 이용과는 달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서비스는 이점이 많다. 에이블리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 상품을 추천받는 것은 유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맞춤형 서비스가 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어플이나 인터넷페이지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 개인정보가 여러 업체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느껴져 불편한 부분이 있다.

빅데이터의 긍정적 측면

- 일상활동에서 이용된 빅데이터의 경우, 이득을 보는 사용자는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를 위한 이득이다.
- 여행업계에서는 빅데이터가 많이 상용화되었다. 코로나 후로 플랫폼으로 관광정보 얻는 것이 트렌트가 되었고, 소규모 및 근교 관광이 늘어나면서 관광이 유형이 세부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여행 제시해 주어 사용자를 위한 빅데이터가 사용된다.
- 또한 의료인공지능개론의 수업내용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AI의 발달은 일자리 감소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만큼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인 능력 기르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좋은 곳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유

- 일말의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퍼져 나갈지 모르는 일이다. 또한 데이터의 이용은 데이터3법이 따라 분류되는데 이에 허점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악용되고 역추적당하여 개인정보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빅데이터 좋은 점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개인정보노출을 가볍게 여기면 안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또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론

- 책에서 말한대로 빅데이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분야이다. 두 부분이 함께 존재하므로, 우리가 정보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데이터의 자기 주도권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3,4부)

소감

- 암묵적 지시/ 명시적 지시는 기호화하기 어려운 지식인데, 이것을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데이터 값을 일일이 입력해야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으며, AI의 사고방식에서 명제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사람(데이터사이언티스트)이 될 것인가, 인사이트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의사결정자)이 될 것인가?

- 데이터사이언티스트(아영)보다 의사결정자(현수, 은선, 상희)가 더 많았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빅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토론하였다. 이 의견은 이 책에서 말하는 리더와 거의 일치한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데이터를 올바른 위치에 반영할 줄 아는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외국과 한국의 데이터 인식차이: 마이데이터

- 외국의 경우 “내 데이터 줄게”, 한국: “내 정보 주면 나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데이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는 만큼 직접적인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데이터시장은 기업에서 발생되어서 그들끼리 데이터를 교류하였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어야 하고, 소유권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리더의 역량

- 책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제시되었다. 방법에는 데이터를 전문 기업에게 맡기는 방법,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의뢰하는 방법, 자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개발하여 직접 알아보는 것이다. 이 3부류를 이용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정보의 가치에 있다. 흔히 알려진 지식이면 전문 기업에 맡기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이면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의뢰한다. 하지만 의뢰비용이 둘다 들어가기 때문에 3번째 자사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좋으며, 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룸과 동시에 의사결정까지 가능함으로 데이터 누락이나 가치를 살필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리더는 두 영역을 다 다루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 “리더는 애널리틱스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책의 말처럼 데이터를 맡기는 사람도 데이터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AI교육처럼 빅데이터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도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면 좋겠으며, 아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한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토론하였지만, 결국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021 년 5 월 25 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용인이간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6 월 3 일(목 요일) / 장 소 : 사회경영관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정**				
<p data-bbox="268 1308 395 1339">토의 내용</p> <p data-bbox="189 1355 472 1386">(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data-bbox="507 1115 1070 1146">읽은 책: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사회-1,2부)</p> <p data-bbox="507 1160 1390 1317">주제: 이 책은 탁월한 4명의 미국 대통령의 삶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인물이 리더로써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리더의 기질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토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경은 리더십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물이 겪은 상황별로 토론하였다.</p> <p data-bbox="507 1370 970 1402">-대통령 4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p> <ul data-bbox="507 1415 1390 2033"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브러햄 링컨: “특별한 사람” / 선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링컨은 자신감 하나로 대통령이라는 높은 직위까지 올라왔던 사람이다. 또한, 링컨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법을 확실히 알았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시어도어 루즈벨트: “끈기와 노력으로 얻어진 능력과 내적 성장” / 어렸을 때부터 천식으로 인해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소아마비에 걸려 모두가 그는 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끈질기게 운동하고 노력하여 자연 속에서 내적인 성숙, 성장을 얻었던 사람이다. 정말 끈기와 노력이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낙천적 기질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이 확고한 사람” / 결정을 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결정을 하면 저돌적인 사람이다. 결정에 대해 실패해도 그 순간은 자신이 최선의 결정을 했음을 잘 알고, 후회는 하지 않았던 자기 확신이 확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린든 존슨: “악바리 근성” / 이 사람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구분이 전혀 없었다. 시골 학교의 교사로 시작하여, 정치에 입문하고 미국의 하원, 상원의원을 모두 지내고 부통령까지 당선하였지만 만족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여 대통령직까지 당선한 악바리 근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들의 가정환경은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에이브러햄 링컨: 가정환경은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 시어도어 루즈벨트: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자선사업 해서 명성이 높았음. 가정교육 잘 된 사람. 부유한 환경.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모님은 부유했음. 누가 봐도 금수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커서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았음. 낙천적인 가정환경으로 시작하여 그게 그대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
- 린든 존슨: 가정환경 좋음. 아버지 정치 어머니 교양있는 아가씨 집안. 어릴 때부터 정치에 일가견이 있었음. 자발적으로 정치에 뛰어듬. 하지만 어머니의 잘할 땐 칭찬 못하면 채찍 양육방식이 린든 존슨에게 영향을 줌. 이랬다 저랬다 함.
- 기본적인 가정환경은 비단 리더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리더들의 역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지?

- 에이브러햄 링컨: 친구들의 정신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는 공동체의 기억을 남기는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약점과 결함을 직시했고, 실패를 반성하였다.
- 시어도어 루즈벨트: 정계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어 아내와 엄마가 하루 차이로 죽었던 게 그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으나, 슬픔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으려 일중독인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즉, 외적/정치적 극복보다는 내면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경외심을 느꼈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척수성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정상인처럼 재활을 해내고 말거다라는 스스로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다. 더불어, 아픈 프랭클린을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했는데, 주변인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린든 존슨: 아내의 헌신과 내조, 선거유세 비용 등 경제적 지원이 린든 존슨의 역경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역시나 큰 일을 하는 데에는 가족이 그만큼 헌신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역경은 리더십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 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리더의 직위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고난을 이겨내는 탄력성을 키운다면, 또다른 고난이 닥쳐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아*: 역경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돌아보게 된다.
 - 상*: 흔히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리더는 많은 것을 책임지므로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시대가 리더를 만들까,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 걸까?**
- 현*: 리더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점에 오를 때 까지는 단계를 밟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며 시대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은*: 시대가 리더를 만들었다. 사람은 시대에 맞춰서 야망을 수정하고 추진해나간다고 생각한다.
 - 아*: 리더가 시대를 만들었다. 독하게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대가 어떤 때였어도 이 사람들은 다시 리더가 될 것 같다.
 - 상*: 시대가 리더를 만들었다.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적절한 리더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더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리더의 기질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 4명 모두 선천적인 기질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가정환경은 자신이 고를 수 없으므로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야망을 이루는 것 역시도 노력이긴 하지만 선천적인 기질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2021 년 6 월 3 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용인이간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6 월 7 일(월요일) / 장 소 : 융합인재학부 과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정**				
<p data-bbox="188 1294 472 1375">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data-bbox="507 1294 997 1375">-읽은 책: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3부) -주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p> <p data-bbox="507 1429 1393 1585">-책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끈기와 열정이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리더의 태도에 있어 내재된 기질이 신기했고, 리더가 되는 것에 선천적인 면도 분명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다.</p> <p data-bbox="507 1639 1393 2000">-야망은 가지고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책에서 존슨 대통령은 학교 토론팀의 담당교사가 되면서 꼴등에서 1등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등을 만든다는 목표와 이상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보았을 때 리더십의 원천, 즉 야망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한편 존슨 대통령이 위사람들에 아부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병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관리한 것과 동료나 부하직원에게는 능력적인 부분으로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지고 있는 야망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는 후천적인 노력도</p>							

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작가에게 이야기 하는 장면이 나온다. 리더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리 강해보였던 사람이어도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다'를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걱정하느니 움직인다'는 점이다.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남기지 않되,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좋은 리더로 기억할까?

-일을 잘 하는 리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려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인격과 인품의 측면에서 보다는 성과 위주의 정치인들이 더 많은 신임을 얻는 것 같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는 리더.

-국제 정세를 잘 읽을 줄 아는 리더.

-책임을 맡은 집단과 공동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리더.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책에서 볼 수 있는 리더들의 태도를 보고 본받을 점은 무엇이 있는가?

-상*: 능력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고,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골고루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현*: 목적의식과 야망을 가져야 한다.

-은*: 정치적인 야망 뿐 아니라 본인의 목표에 대한 야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누구든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외 더 이야기 해볼 것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리더로서 허용되는 일일까?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두를 포용하는 게 리더일까? 효율과 능력을 따지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일까?

2021 년 6 월 7 일

참가자대표 : 이**